

지식·교양·재미 프로그램 다양... 자녀교육에 최적

“우린 도서관으로 문화소풍 간다”

사서 서정란씨가 제안하는 ‘공공도서관 200% 즐기기’

내가 어릴 적 이용한 도서관은 읍내에 지어진 아담하고 조용한 건물이었다. 그곳은 내가 다녔던 파아노학원 근처에 있어 학원 수업이 끝나면 들르곤 하는 곳이었다. 1층은 폐가제(도서명을 적어주면 직원이 책을 서가에서 가져다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대출실이 있었고, 2층에는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2층에서 공부를 하곤 했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의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장소로서 독서실의 기능이 훨씬 커졌던 것이다.

당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지만 사실 책을 잘 빌려보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이미 어머니께서 사주신 전집류가 많이 있어서 그 책들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이런 내게는 딱딱한 전집들이 학교 숙제마냥 귀찮고 힘든 존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독서교육이 흥미로운 책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자연스레 같이 있는 책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

쉬움이 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책을 넓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논술에 도움이 된다며 고전과 현대문학전집을 들이미는 부모님, 독서를 숙제로 만들어버리는 선생님에게서 독서를 배우기 때문에 책이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고, 도서관은 지식의 놀이터인데 말이다.

광주시내 도서관 몇 군데가 낡고 노후화되어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



지역 공공도서관을 찾으면 북아트·구연동화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사진은 사직도서관 구연동화 강좌 모습

책은 장난감, 도서관은 지식 놀이터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 쌓아요”

다. 사직도서관은 20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어린이실에 ‘수유방’, ‘빛 그림터’, ‘전망좋은방’, ‘책 읽어주는 방’과 같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주말에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빌리거나 읽으러 온다. 책 읽어주는 방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도란도란 책을 읽어

주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방에서는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 도서관에 온 아이에게는 그냥 책과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기만 하자.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레 읽고 싶은 책을 집어 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할 것이다. 권장도서라는

규격에 아이를 맞추려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자.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동심원을 그리듯 독서영역을 넓혀 가면 된다.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가자. 가서 아이 앞에서 즐겁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평생 함께 할, 질리지 않을 장난감 하나나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놀이터에서 책을 장난감 삼아 즐겁게 지식을 쌓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내일이 정말 기대되지 않은가!

〈광주시립사직도서관 자료팀〉

■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여름에는 삼계탕, 찬바람 불면 따뜻한 물에 목욕봉사

한적 ‘한빛 봉사회’ 행복바이러스 온누리에 퍼졌으면

“할머니, 오늘 20년은 짧게 해드릴 게요.” “무슨 소리야. 그럼, 스무살인 데~. 하하하”

최근 유덕동 주민센터에는 오랜 만에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적십자사 서구지부 한빛 봉사회(지부장 이연옥) 회원 10여명이 마을을 방문해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서구지부 한빛봉사는 농사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경로당에서 잠시 일손을 놓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염색을 무료로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회원은 “평소

머리 가꿀 시간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빛 봉사회는 금호복지관에서 2, 4개주 수요일에 어르신을 목욕을 도와드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광진동과 유덕동, 생활동에 사는 11명의 어르신을 찾아가 쌀 20kg들이 쌀 1포씩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월별 봉사일정도, 연간계획도 따로 만들어진 게 없다. 그때 그때 어르신들께서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 시는 일들을 매월 겉은 회비와 회원들의 마술 손을 총출동해 적극 해낸다. 겨울에 김강김치를 담그고, 여름



대한적십자사 서구지부 한빛봉사회 회원 10여명이 최근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마을을 방문해 미용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에 삼계탕을 끓이고, 찬바람 불면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드린 회원들이 머리염색을 하게 된 것도 농촌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은 것이다.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하루에도 광주 전역에서 흩어져 모이길 두 세 번 씩 하는 회원들은 자원봉사의 역사를

직접 밭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봉사활동의 산과역할을 한 심정희 회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있지만, 어르신들과 나눈 훈훈한 정이 행복바이러스로 온 누리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연옥·대한적십자사 서구지부장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1140-5210 월 011-802-252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월 011-609-5221

(구 상우대 정문)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590평 건물 4,500평(대가 210억)
-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수 12억
- 건물 보증금 29억 월세 6,000만원(대가 10억)

▶ 트지(상무지구 상업지역)

- 회사사무,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업무용지)-매가 평당 750만원
- 250평(유동기능)-매가 평당 1,200만원
- 500평(업무용지)-매가 평당 1,200만원
- 135평(유동기능)-매가 평당 1,000만원

▶ 기타용도

- (농장) 흥선동 약 2만9천평 평당 10만원
- (주거지역) 장동동 2,300평 평당 45만원(오늘원 등 협약)

▶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매가 평당 450만원
개발등기 있음
- 회원, 토서실, 사무실 등 적합
- 세정 이율및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원형

●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

맞춤주택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기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산공인중개사

T. 081-5668 H. 011-801-5354

주유소부지 금매매

위치 : 해남군, 강진군 경계
(성전면, 국도면, 최고현적면)

대지 1450평, 도로겸유 1250평 하기유

주유소 허가 및 건축허가 특

GS와 계약

(건축비 3억 보조 및 주유기 무료제공제)

해남 원도 진도 출발 상행선

광주도 80km

트럭작업원

강진군 남경계 이자탄 지점

매매가 3억

(금호화석사 주유소 및 건설비 2,800만원)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 지역) 매매

■ 위 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 지 ■

약 2850㎡, 가격 협의

• 근린시설, APT신축,

빌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

(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완

주유소 매 매 (교환도 가능)

▶ 전원주택 매매

▶ 상가 매매

▶ 주유소 매 매 (교환도 가능)

▶ 주유소부지 매매

▶ 주유소부지 매매